



## 미 증시, 연준 긴축 종료 기대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14 일(수) 미국 증시는 매패적이었던 ECB 회의, 미국 소매판매 상승 vs 산업생산 하락 등 엇갈린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도, 6월 FOMC 이후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3%, S&P500 +1.2%, 나스닥 +1.2%). 업종별로는 헬스케어(+1.6%), 커뮤니케이션(+1.5%), 산업재(+1.5%), 기술(+1.3%)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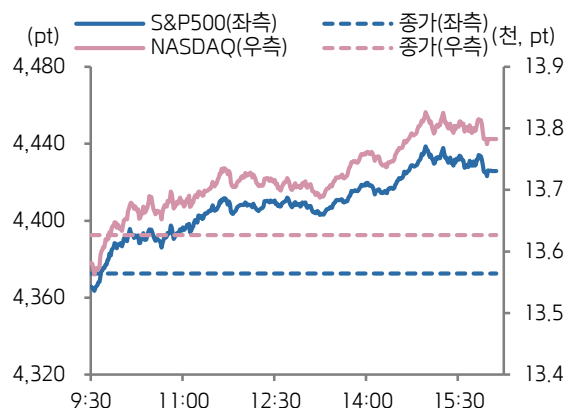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0%로 25bp 추가 인상을 단행.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오랜기간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 목표치에 도달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힘. '23년 성장을 전망치는 기존 1.0%에서 0.9%로 하향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기존 4.6%에서 5.1%로 상향.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새로운 금융시장의 긴장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고 진단. 다만, 아직 최종금리 종착지에 있지 않다면서 일시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7월에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표명.

미국의 5월 소매판매는 +0.3%(MoM)으로 전월(0.4%)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둔화됐으나, 컨센(-0.1%)는 상회. 6월 뉴욕 엠파이어스트리트 제조업 지수도 6.6pt로 전월(-31.8pt) 및 컨센(-16.0pt)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반면 5월 산업생산은 -0.2%(MoM)로 전월(0.5%) 및 컨센(0.1%)을 하회했으며,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6.2만건으로 컨센(25.0만건)을 상회하는 등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혼재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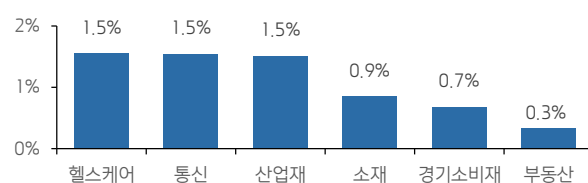
중국의 5월 소매판매는 12.7%(YoY)로 전월(18.4%) 및 컨센(13.7%)을 모두 하회했으며, 5월 산업생산도 3.5%(YoY)로 전월(5.6%) 및 컨센(3.8%)을 하회. 5월 고정자산투자도 4.0%(YoY)로 전월(4.7%) 및 컨센(4.4%)에 못미치는 등 중국의 실물 경제는 기대치에 비해 부진한 수준을 기록. 이 같은 중국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WSJ 등 외신에서는 약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 다주택 투자 제한 폐기 신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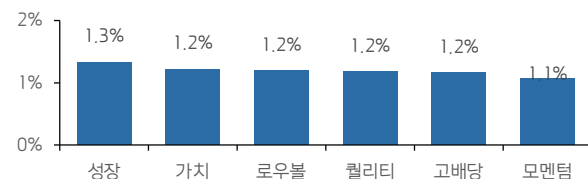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8.54	-0.4%	USD/KRW	1,280.49	+0.17%
코스피 200	343.19	-0.42%	달러 지수	102.16	-0.77%
코스닥	878.04	+0.71%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45.78	+1.02%	USD/CNH	7.12	+0.02%
S&P500	4,425.84	+1.22%	USD/JPY	140.28	-0.01%
NASDAQ	13,782.82	+1.15%	채권시장		
다우	34,408.06	+1.26%	국고채 3년	3.620	+8.1bp
VIX	14.50	+4.47%	국고채 10년	3.685	+6bp
러셀 2000	1,889.28	+0.81%	미국 국채 2년	4.642	-4.6bp
필라. 반도체	3,708.06	-0.85%	미국 국채 10년	3.717	-7bp
다우 운송	14,868.79	+1.55%	미국 국채 30년	3.838	-4.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65.12	-0.25%	WTI	70.62	+3.44%
MSCI 전세계 지수	685.26	+0.91%	브렌트유	75.63	+3.32%
MSCI DM 지수	2,966.43	+0.91%	금	1970.7	+0.09%
MSCI EM 지수	1,023.59	+0.86%	은	23.95	-0.66%
MSCI 한국 ETF	67.04	+0.24%	구리	390.1	+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6 월 FOMC 결과 소화한 이후 긍정적인 경제지표 결과에 확산된 경기연착륙 기대감 2. 어도비 실적서프라이즈, 마이크로 소프트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AI 관련주 영향 3. 중국 하반기 부양책 기대감이 국내 시클리컬주들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어제 연준은 연내 2 회 추가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믿지 않는 모습. 파월의장은 어제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를 보고 7 월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 올해 4 번의 회의가 남아있는 가운데 6 월 물가 추가 하락, 고용 둔화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 번의 추가 인상은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 시장은 현재 7 월 인상 가능성(Fed Watch 기준 25bp 인상 확률 67.0%) 까지도 반영한 상황으로 만약 6 월 지표들에 따라 7 월 역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추가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이러한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로 미 증시 강세에 기여.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2 만건(예상 24.5 만건, 전월 26.2 만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5 월 수입물가지수는 MOM -0.6%(예상 -0.5%, 전월 0.3%)으로 전월대비 마이너스 전환, 연간으로는 YOY -10.1%(예상 -8.4%, 전월 -6.0%) 기록하며 3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 반면 5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예상 -0.1%, 전월 0.4%)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 5 월 CPI 는 전월대비 0.1% 증가했으므로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소비는 증가했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건설자재, 자동차, 가구 및 가전, 백화점 등 경기에 민감한 항목들이 상승했다는 점은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높임.

15 일(목) 국내증시는 6 월 FOMC 결과 소화하는 가운데, 장중 발표된 중국 5 월 실물지표 부진 이후 낙폭 확대하며 2 거래일 연속 하락, 2610 선 하회 마감. 코스닥은 전일 매물 출회되었던 이차전지 업종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KOSPI -0.4%, KOSDAQ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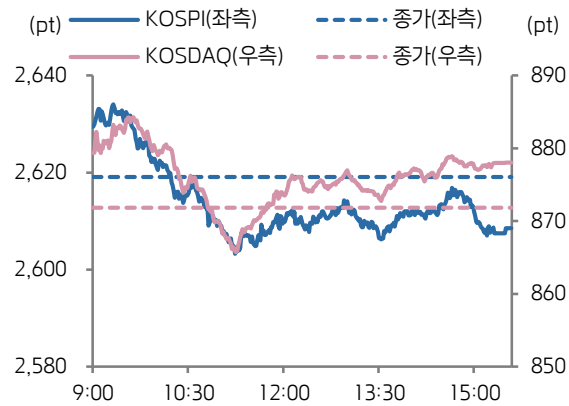
금일에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대장주 엔비디아(-0.8%), AMD(-2.43%)의 조정에도 어도비(+2.37%)의 실적 서프라이즈, MS(+3.19%)의 AI 매출 성장 기대 등 AI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영향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어제 장중 발표된 중국 5 월 소매판매 YoY 12.7% (예상 13.7%, 전월 18.4%), 산업생산 3.5%(예상 3.5%, 전월 5.6%), 고정자산투자 4.0%(예상 4.7%, 전월 4.4%) 기록하며 세가지 지표 모두 예상치 하회하는 결과. 도시 실업률은 5.2%, 16~24 세 청년 실업률은 20.8%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지표 부진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 기대감 유입되며 전일 중국 본토,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 지난주에는 5 대 예금은행이 예금금리를 인하했고, 이번주 초에는 인민은행이 단기 역레포 금리를 인하하며 뚜렷한 완화적 기조를 나타냄. 추가로 어제 지표 발표 이후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1 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0.1%p 인하. 물가가 아직 낮기 때문에 정책 여력 존재하며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7 월 정치국 회의까지 추가 부양책 나올 가능성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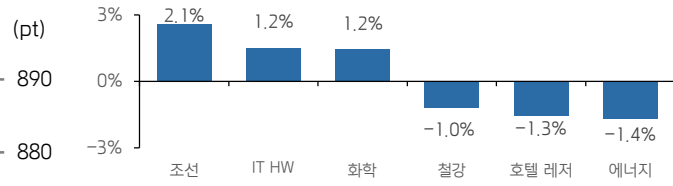
최근 테슬라의 주가 강세로 국내 이차전지 업종 역시 재차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4 월달과 달리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게 아니라 반도체, 경기민감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강세로 인한 외국인들의 환차익 실현으로 매수세가 주춤하긴 했으나 그 강도는 약하다고 판단. 이번주 시장의 조정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인 조선, 기자재 업종이나, 6 월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학, 기계, 철강 등 산업재, 소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며, 중국 리오프닝 실망감으로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호텔레저, 화장품, 의류 업종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

## KOSPI &amp;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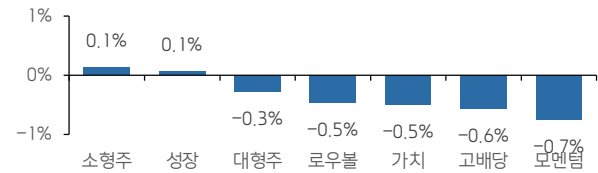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